

KDK Kim Dokyun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축의 피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공간을 가공하여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진으로 담아 내는 작가 김도균. 그가 베를린 마이클슐츠갤러리에서 개인전 <Facility Skins>(5. 28~6. 21)를 열었다. 지난 5년 여 동안 촬영한 <sf> 시리즈 중에서 '편리한 건축의 피부'라는 뜻의 전시 제목에 걸맞은 작품을 선별해 전시했다. 필자 김종길은 최신식 건축물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어 있는 허상, 그리고 탈모더니즘 건축의 허구를 '빛과 그림자'로 재현하는 사진가 김도균의 작업 방식에 주목하여 건축의 '피부', 그 숭고한 미학을 분석한다.

글 | 김종길·미술평론가

작가 김도균의 눈과 카메라가 하나의 시선이 되었을 때, 그는 인간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현대식 건축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미 고대에 존재했고 그래서 역사적 개념으로 완성되었으나 현대에 와서 완전히 탈바꿈된 개념을 보여 주는 극장 미술관 경기장 수영장 비즈니스 빌딩 등과 같은 '건축물' 말이다. 영화나 연극 따위가 아닌 극장 건축에서, 조각이나 그림이 아닌 미술관 건축에서, 수영이나 다이빙이 아닌 수영장 건축에서, 삶의 다양한 양태들이 기생하는 비즈니스 빌딩에서... 그는 예술과 스포츠와 삶을 애벌레 삼은 새로운 공공 건축의 '변태(Metamorphosis)'적 양상에서 탈모더니즘의 미학을 발견했고, 그것의 미학적 품새를 사진으로 직조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현대 건축의 '아름다운 피부'를 표현한다.

오늘날의 초현대식 건축물은 과거와 달리 그 내부의 기능이 규정하는 성격과는 사뭇 다른 외모를 생경하게 보여 준다. 중세 서양의 성당이나 동양의 사찰, 로마의 고대 원형 투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얼마 전 용도 폐기된 동대문운동장까지, 예배와 투기와 운동을 위한 내부의 기본 골격과 그렇게 완성된 건축의 정체성 및 속성은 건축의 외관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고대 국가의 신전들과 근대적 박물관, 오페라 극장 등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전통이라는 역사적 향취와 고전의 권위로 자연미인의 위풍을 당당하게 뽐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건축 미학의 절대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공공적 공간들의 21세기적 변용은 돌연변이나 종의 진화, 변태처럼 그 실험의 과정이 끊어 보인다. 사진가 김도균이 불현듯 포착한 건축 사진에는 그런 변용의 미학이 낮게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미학은 모더니즘을 건너뛰어 옛 건축이 발산했던 숭고와 마주한다.

허상과 허구의 실재

지난 6월 21일 종료된 베를린의 마이클슐츠갤러리에서의 전시 제목은 <Facility Skins>였다. 김도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여 동안 촬영한 <sf 시리즈> 중 '편리한 건축의 피부'로 묶이는 작품들을 선별한 뒤 <new sf>로 묶어 전시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사진작품의 컨셉트인 'sf'는 'Space Faction'과 'Science Fiction'의 의미를 교차적으로 함의한다. '팩션(Faction)'이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합성어라는 사실을 주지할 때, 두 개념은 실재에 바탕을 둔 건축의 공간적 허상('허상'은 건축의 서사적 구조와 상관한다)과 과학적 허구로서의 '공상과학'을 뒤섞고 있다는 생각이다. '건축의 공간 허상' '과학적 허구'라는 언어의 부조리와 비논리적 개념의 충돌과 혼합에서 그는 21세기 신건축이 타전하는 의미소를 사진에 박아 '개념화'하려는 것이다. 실재와 허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서의 건축적 진리!

'건축의 피부'라는 주제로만 볼 때 허상과 허구의 실재를 하나의 진리로 보여 주는 사진은 <sf.Bar-1>이다. 그가 이 작품 한 점을 신건축 사진들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은 관람객을 위한 전시 개념 해석의 중요한 단서일 가능성이 높다. 100년의 시차를 둔 옛 건축과 새 건축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허상과 허구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의 꼬리를 붙잡아 당겨서 의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할 때 <sf.Bar-1>는 많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sf.Bar-1>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1883년부터 주임 건축가를 맡아 건축했던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파밀리아(Sagrada

Familia)대성당의 한 부분이다. 가우디는 전임자 빌라르가 계획했던 건축적 개념과는 다른 아르누보적 디자인으로 설계를 변경한 뒤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4개의 탑을 세웠다. 김도균은 가우디 건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대성당의 파사드와 4개의 탑을 주시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완성된 파사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파사드’뿐인데, 별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에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나는 파사드의 조각과 마티에르와 세밀한 ‘피부’들이 <sf.Bar-1>이다.

가우디의 네오고딕식 건축이 ‘고딕과 이슬람 건축 양식을 발전시켜, 자연의 유기성을 강조한 곡면과 곡선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독특한 형태, 도자기 타일을 이용한 모자이크 등 다채로운 특징을 지닌 독자적인 양식’의 창출로 평가받듯이, 김도균은 역사적 양식에 자연의 유기성을 더한 가우디 건축의 건축적 판타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는 파사드의 판타지와 그 황홀경에서 허상과 허구의 실재, 즉 이미지의 진리를 경험했던 게 아닐까.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사실의 허상이지만, 빛의 이미지로서 진리를 드러내듯이 말이다. 파사드의 조각적 판타지와 빛의 황홀은 장엄했을 터.

장엄(莊嚴)은 장식엄경(裝飾嚴)의 준말이다. 불상이나 불전, 사원의 가람 전체, 건축 세부, 각종의 장엄구 등을 채색 및 문양으로 장식, 미화하는 것이 곧 장엄인 것이다. 가람의 단청이 장엄이요, 보살상의 보관 귀걸이 목걸이 조백(條帛) 팔찌 등이 장엄이다. 장엄은 건축에 영혼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 특히 종교 건축에서 장엄의 효과는 예배자의 감성에 더하여 공덕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성당에서도 스테인드글라스와 천정 벽화가 내부의 장엄이라면, 성서를 바탕으로 새겨 넣은 수많은 조각들은 외부의 장엄이라 할 수 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파밀리아대성당은 성당 건축의 장엄이 보여 줄 수 있는 절대적 미학에 근접한다.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설계도에 따라 130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엄의 조형적 미학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김도균의 <sf.Bar-1>은 사그라다파밀리아대성당의 세세한 장엄과 장엄의 극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우디에 의해 탄생되었으니 가우디와 건축의 인과율이나 혹은 미학적 세계관의 역할관계보다는 그것의 황홀경으로서의 장엄, 즉 ‘영혼’을 포착하려 든다는 점이다. 고딕과 이슬람 양식에 자연의 유기성을 더해서 성스러운 영혼의 안식처로 빛은 대성당이 성당의 실재라면, 캄캄한 밤에 발밑조명을 받아 어렴풋이 드러나는 파사드의 온갖 조각들의 현현은 실재를 월경하는 초월적 풍경의 세목들이다. 눈앞의 성당과 가우디의 설계도가 실재와 과학이고, 빛에 의해 은밀하게 그러나 화려하게 드러나는 건축의 피부는 허상이요, 허구이다. 가우디는 이 둘의 극한에서 종교적 영성의 인간화를 꾀했는지 모른다. 가우디의 건축적 복심은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기계론(Mechanism)’의 철학과 정면으로 맞선다. 모든 사상을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는 이 철학 개념은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했을 당시 지니고 있던 목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물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철저히 배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에 따르면 인간은 영혼 없는 육체적 성장의 소산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정신이나 생명활동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건축이라니! 종교적 영성의 인간화라니! 건축에 내재하는 숨은 성질이나 능력 따위를 언급하다니!

기계미학의 극치와 느낌의 총체

그러나 칸트와 데카르트, 라메트리에 의해 발전된 기계론의 등장은 유물론과 근대 과학의 인간관을 형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인간을 사물과 다르지 않게 보려는 인식의 근거에는 신의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신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기계론은 우주의 현상을 자연적 인과 관계와 역학적 법칙으로만 해석한다. 생명의 현상에 대해서는 무생물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시계와 같다”는 비유가 가장 유명하다. 천변만화하는 천지만물의 자연일지라도 그것은 시계의 정확함처럼 인과관계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계론은 근대적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최고의 덕목이 되었다. 특히 돌과 흙의 건축이 저물고 ‘철의 건축’이 도래하면서 기계론은 철학 이상의 구조주의적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기계론과 과학, 이성 그리고 철의 건축은 마치 빅뱅이 일어나듯 결합해 인류 역사상 가장 특기할 만한 20세기 건축의 특질을 터트렸다. 그것은 모더니즘 건축의 완성이었다. 기계론의 도시 바벨탑은 20세기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성채다. 그리고 지금 탈모더니즘의 건축은 바벨탑의 구조가 되었던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법과 철 자체의 진화로 인해 내부 골격뿐만 아니라 외벽까지 확장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건축

에 대한 유례없는 인식의 전복과 건축 개념의 무한 확장, 건축재의 파격적 활용은 그야말로 상상의 건축을 현실화하는 데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인다. 예컨대 미래 건축의 과제를 제시하며 21세기 건축의 위대한 사례로 연구 되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건축물이 바로 지금 여기의 눈앞에 현현되고 있지 않은가. 기계미학의 극치라고 해야 할 미래 건축의 현실적 도래가 흥미롭게도 <sf.Bar-1>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20세기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탈모더니즘 건축으로 읽히는 21세기 신건축의 피부는 모더니즘의 이면에 가려진 페르소나처럼 보인다. 심플한 곡선과 기하학적 도형, 기능성을 가미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20세기적 가치들이 벗겨지고 있는 것인데, 과거의 전통을 낳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개혁과 혁신을 추구했던 모더니즘 건축의 변신이자 변태적 과정이라. <sf.Bar-1>과 평행축을 이루는 김도균의 다른 사진들은 그런 변태적 과정을 끝낸 신건축의 '새로운 피부'이다. 미래 건축의 도래와 그 증거에서 그는 근대적 기계미학의 극치보다는 건축의 어떤 놀라운 심리적 영성이랄까 혹은 감성이랄까 하는 색다른 장엄의 현상을 발굴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모더니즘 건축이 의도적으로 상실한 '빛의 피부'이다. 가우디의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거친 질감의 종교적 아우라 따위는 이것들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폴 앙드레가 디자인한 베이징의 국립극장에서 영감을 얻은 <sf.Be-5>와 같이 그것은 과학적 기계론이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그 무엇이다.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단순함과 기하학적 도상, 기능성을 함축하되 기능이 건축의 외양을 전제하지 않는 그 무엇, 어둠에 둘러싸인 뒤 안팎의 빛에 의해 최소한으로 출현한 타원형의 그 무엇, 그 무어는 초현실적 풍경의 '픽션'이면서 동시에 리얼한 현실이고, 그 느낌의 총체는 숭고함이라 할 것이다.

빛 그림자, 빛의 숭고

<sf.Be-3>는 건축가 PTW가 디자인한 베이징의 국립수영센터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 또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건축의 피부에 집중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건축의 피부'라는 동일한 개념의 파생은 가우디의 사그라다파밀리아대성당이 보여 주었던 건축의 영성에 대한 개념적 전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밖의 다른 구체적 지시물이나 혹은 이미지로부터 독립되어 그 자신의 '빛의 피부'를 놀랍도록 생경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신건축은 김도균에게 모더니즘을 극복한 탈모더니즘으로 읽히기에 충분했을 터.

<sf.Be-3>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건축적 풍경인가를 질문한다. 어두운 배경으로 파고든 삼각의 뿔과 그 뿔의 바탕을 이루는 다각형의 푸른 이미지들 그리고 각각의 비늘에서 번져 나온 은은한 빛의 입체감이, 넓적한 평면으로 완고하게 제시된 먹빛 하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밖의 흰 빛으로부터 간섭을 받아 마치 스크래치 당한 듯 거칠게 흩뿌려진 비늘의 빛조차 낯설다. 이러한 작가적 시선에 따른 피사체의 분위기는 <sf.Sel-10>에 이르러 해석불가능의 영역에 도달한다. 서울의 어느 도시 건축에서 발견한 이 장면은 어떠한 건축적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둥근 띠 모양의 핑크빛 원형들로 가득한 화면 속 공간성은, 직사각형의 사진틀 내부와 내부 전체의 먹빛 어둠 속에서 마름모꼴로 멀어지는 단 하나의 지표에 있다. 사진 하단에 핑크빛 원형고리들이 마름모꼴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성이 실내의 한 부분인지 아니면 건축의 외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완전히 추상화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계미학이나 구조주의 철학과도 상관하지 않는 어떤 순수한 빛의 피부를 만난다.

한편 <sf.Sel-12>와 <sf.Tko-6>은 위의 작품들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극단적일 만큼 빛의 피부가 타전하는 초현실적 감각에 민감했던 시선이 사뭇 근대적인 공간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노톤에 가까운 전체 이미지는 빛과 그림자에 의해 강렬한 직선과 곡선을 표출한다. <sf.Sel-12>이 날카롭고 선연한 직선의 빛을 그려 내고 있다면, <sf.Tko-6>은 그런 직선의 면을 투과하는 둥근 망점이자 빛이다. <sf.Sel-12>의 강렬함에서 미묘한 중세적 감성과 조우한다면, <sf.Tko-6>에선 경쾌한 모더니티의 싱그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간들이 어떤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간파할 수 없다. 학교인지 병원인지 카페인지 노래방인지 모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어떤 주체들이 이곳을 오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 건축이 포용하는 개념의 애벌레들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건축의 특

장이면서 동시에 아이러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선과 곡선의 빛 그림자에서 어떤 송고의 감성을 느끼는 것은 또 무엇인가!

<sf 시리즈>의 출발이 되었던 사진 중 <sf.C-1>을 보자. 건축의 전체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작품이다. 또한 빛과 빛 그림자가 동시에 엮보이는 작품 중 가장 정직한 작품이기도 하다. 빛 그림자로서 빛 그늘이 한데 어울려 '동시화' 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의 미학적 개념은 이것이다. '빛 그늘의 동시화' 그리고 그 동시화의 21세기적 영성. 그러므로 허상과 허구의 진리는 이 동시화의 영성이라고 해야만 한다. 슬픔이나 기쁨 따위, 종교적 신심이나 울림 따위를 배제하고 차가운 이성의 과학적 근대를 꿈꿨던 건축가의 꿈이 그에게서, 그의 사진에서는 역설적인 빛 그늘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Facility Skins>는 편리한 건축물의 '피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그 피부의 빛 그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는 먹빛 어둠이라는 바탕에서 각각의 건축과 그 피부가 이야기하려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빛 그늘과 피부는 21세기 건축의 파사드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더니즘이 상실했던 슬한 서사적 구조의 이미지들이 그 먹빛 안에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